



여름이니까 ‘과캉스’ 가자~

〈과학+바캉스〉

국립광주과학관이 여름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을 맞는다.

◇‘2025 돔 영화제’ = 국립광주과학관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과학관 내 천체투영관(플라네타리움, Planetarium)에서 ‘2025 돔 영화제’를 개최한다.

천체투영관은 지름 12m의 대형 돔 스크린과 360도 입체영상 시스템, 4K 고화질 영상과 입체 서라운드 사운드를 갖췄다. 관람객은 단순히 영화를 보는 수준을 넘어 마치 우주 공간 속에 직접 들어간 듯한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영화제가 개막하는 1일 오전에는 ‘돔에서 내리는 별비’ 영화 상영을 통해 실감 나는 유성우 이 야기를 경험할 수 있다.

2일부터는 본격적인 돔 영화 상영이 시작된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총 6편의 돔 영화가 상영된

다. 대표적인 ‘위대한 태양계 행성 탐험’(25분)은 시간 여행자 소맨과 함께 태양계 곳곳을 누비는 흥미로운 여정을 담았다.

주목할만한 작품은 국내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내레이션을 맡은 ‘우주비행사’(22분)다. 인간이 우주에 도전하는 과정을 생동감 있게 담아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전달한다.

‘3-2-1! 리스트 오프’(25분)는 우주선을 찾아 떠나는 모험담을, ‘헤이줄넷: 완벽한 행성을 찾아서’(25분)는 다람쥐 남매의 우주 탐험기를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전한다.

‘크룩카와 마법로켓’(32분)은 마법 로켓을 타고 펼쳐지는 판타지 우주여행을 다루며, ‘캡콤 고! 아폴로 스토리’(26분)은 아폴로 11호의 발사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내 우주 역사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관람은 회차당 최대 99명으로 1회차(오전 10시 30분~11시 20분)를 시작으로 5회차(오후 4시~오후 4시 50분)까지 하루 5번 각자 다른 영화가 상영된다. 4회차(오후 3시~오후 3시 50분)는 어린이 극장에서 어린이 별자리 해설과 천문 퀴즈 형식으로 상영된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예매는 온라인 또는 현장 잔여석 발권 방식으로 가능하다. 관람료는 1인당 2000원으로, 상영 하루 전까지 사전에 약할 수 있다.

◇여름 밤하늘 천체 관측 ‘별빛학교’ = 여름 밤하늘을 수놓는 천체 관측 프로그램인 ‘별빛학교’가 오는 8월 6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과학관 별빛누리관 2층 대강당과 별빛천문대에서 진행된다.

총 50분간 운영되는 별빛학교는 1.2m 대형 망원경과 보조 관측실의 고성능 천체망원경을 활용해 실제 천체를 관측하는 프로그램이다. 천문 전문가가 별자리에 대한 해설도 제공해 천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되며, 접수는 이달 22일부터 8월 3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6세 이상(2020년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과학 관련 진로를 체험하는 ‘지속가능 미래직업 진로탐색 3기’ 교육생도 8월 1일까지 지원받고 있다. ‘지구를 살리는 미래직업을 찾아서’를 주제로 하는 미래 직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8월 9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자아탐색 등을 할 수 있는 ‘진로검사’와 풍력발전기의 날개를 설계하고 컴퓨터로 데이터를 측정하며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역할을 직접 체험해 보는 ‘진로체험교육’으로 구성됐다.

또 현직 교사의 ‘진로 강연’을 통해 미래직업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지속가능 미래 직업 진로탐색 3기 신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온라인 예약으로 가능하다.

◇성인 대상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 야심한 여름밤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13회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이 오는 8월 22일 과학관 전역에서 열린다.

페스티벌은 ‘기분좋은 중독’을 주제로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과학관 곳곳에서 열린다. 오프닝은 ‘맛과 리듬에 중독되다’를 주제로 케이터링과 어쿠스틱 밴드 ‘우물 안 개구리’의 콘서트로 시작된다. 이어지는 ‘생각에 빠지다-토크콘서트’에서는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한 정재훈 약사가 ‘다이어트 성공과 실패의 과학’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밤 8시 30분부터는 커피 바리스타 핸드드립 체험과 뇌과학 특별전 연계 체험, 디지털 바 등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베스트 드레서’ 선정, 현장 인생샷 포토 존 촬영, 소정의 기념품 제공 등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참가비는 2만 원이며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쏟아 IT 정보

애플페이, 티머니 교통카드 지원

22일부터 애플 아이폰에서 티머니와 연동한 선불 교통카드 기능이 지원됐다.

아이폰 사용자는 이날부터 애플지갑 앱에 티머니 카드를 추가한 뒤 아이폰 또는 애플워치를 버스·지하철 승차 단말기에 태그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폰 ‘익스프레스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기기를 잠금 해제하거나 켜 필요 없이 단말기에 가까이 대기만 하면 결제된다.

티머니를 통한 선불 충전만 지원되며 다른 후불 교통카드나 ‘기후동행카드’, ‘K-패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애플지갑 앱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현대카드를 등록해 금액을 충전할 수 있고, 모바일티머니 앱에서는 다른 결제 수단을 통한 충전도 가능하다.

LG유플러스 ‘로밍 데이터 2배’

LG유플러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로밍 데이터 2배’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다음 달 말일까지 8GB 이상 로밍패스 상품에 가입한 고객 전원에게 데이터를 2배 제공한다. 공식 홈페이지 ‘유플러스닷컴’과 고객센터 앱 ‘당신의 U+’를 통해 가입한 고객은 데이터 1GB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KT, 최근 5년 AI 특허 출원 1위

최근 5년간 주요 10개 기업의 인공지능(AI) 특허 출원과 등록에 관한 분석 결과에서 KT가 1위를 차지했다. 인공지능(AI) 기업 위트인텔리전스는 22일 ‘2025 국내 AI 기업 기술 경쟁력 분석 리포트’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LG AI연구원, 네이버, 카카오, SKT, KT, 엽스데이터, 솔트룩스, NC소프트, 코난테크놀로지, 이스트소프트 등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생성형 AI의 한 형태)에 참여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허 출원량을 보면 KT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56건, LG AI연구원 36건, SKT 29건, 솔트룩스 24건 등 순이었다.

토스, 누적 카드 발급 200만장

토스는 누적 카드 발급이 200만장을 넘어선 가운데 상반기 카드 선택의 주요 키워드는 적립과 해외로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사용자의 70% 이상이 할인보다 적립 혜택을 선택했고, 연회비는 1만원 미만, 최소 결제 조건은 30만원 미만을 선호했다고 전했다. 혜택은 해외에 집중하며 해외여행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주로 찾았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자체 기준 상반기 가장 많이 발급된 카드는 ‘토스 신한카드 Mr.Life’ 신용카드와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K팝 등 한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뿌리내리며 관련 물품을 중심으로 해외로 중고 물품들이 판매되는 이른바 ‘역직구’가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 사이트의 글로벌 거래액은 동기 대비 333% 증가했다. 거래 건수 역시 345% 뛰었다.

물품별로는 아이돌들의 포토 카드 거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인형·피규어, 음반·영상물, 포스터·

K굿즈 해외서 돌풍…역직구 거래액 3배 늘어

아이돌 포토 카드, 인형·피규어, 음반·영상물 등 K팝 관련 상위권

화보, 의류·패션잡화, 응원 도구 등 K팝 관련 물품들이 상위권을 모조리 휩쓸었다.

회사 측은 특히 최근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 관련한 물품들의 역직구 거래량이 급증했다고 분위

기를 전했다.

케이팝 데몬헌터스 캐릭터인 호랑이(더피)와 까치(수씨)의 모티브가 된 전통 민화를 소재로 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오로골, 병거지 모자, 에어팟 케이스가 각각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에서 거래

됐고 전통 갓을 소재로 한 볼펜이 네덜란드에서 판매되는 등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기념품들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번개장터는 일본의 인기 중고 거래 플랫폼 메루카리, 미국 시장 1위 이베이 등 권역별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3개의 글로벌 판매 채널과 연동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아웃바운드’ 방식의 거래 건수와 거래액 역시 월평균 최소 30% 성장세를 보인다는 전언이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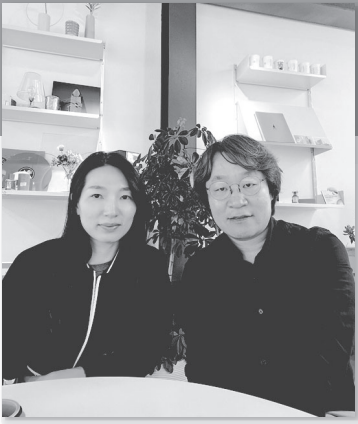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